

<동정자료>

손병석 차관, “안정적 물 관리 위해 정확한 수자원 조사 필수”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개원…국가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 책임·역할 당부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4일(금)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 및 분석, 관련 기술의 개발을 전담할 ‘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’ 개원식에 참석했다.
 - 이날 개원식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수자원학회, 하천협회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출범을 축하해줬다.
- 손 차관은 축사를 통해 “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의 기반이 되는 수량과 수질 등 각종 데이터를 제공해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된다.”라고 소감을 밝혔다.
 - 이어, “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수자원 관련 축적된 자료가 부족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.”라고 문제점을 언급하며,
 - “국가 수자원 조사 자료는 수자원의 계획과 이용, 홍수 피해 저감, 가뭄 대비, 하천 시설의 관리, 수질에 이르기까지 수자원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다.”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.
- 아울러, 기술원 관계자들에게 “물 선진국에 준하는 수자원 조사 자료 제공을 통해 건전한 물 순환 해석, 안정적인 물 공급 및 관련 재해 최소화 등의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 줄 것”을 당부하며,
 - “국가 수자원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,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이 돼 달라”라고 말했다.

2018. 5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